

국립국어연구원 소식

1. 재외 국민 교육용 한국어 영상 교재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연구 1부의 임홍빈 부장과 박민규 연구관은 1991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1주일 동안 재외 국민 교육용 한국어 영상 교재 제작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와 동경외국어대학 아시아 아프리카 언어문화연구소를 방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일본어 영상 교재 및 해설서
- 영상 교재의 저본이 되는 시나리오 작성에 관련된 자료
- 영상 교재의 제작 과정과 소요 경비에 관한 자료 등

2. ‘木花’와 그 관련 어휘들의 어원 조사

우리 원에서는 7월 ‘문익점의 달’을 맞이하여 ‘木花’와 그 관련 어휘들의 어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용한 주요한 자료원은 朝鮮王朝實錄(全 48책)으로서 朝鮮王朝實錄 總索引의 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木花’는 중국에도, 일본에도 없는 우리만의 한자어이다. ‘木花’는 中宗實錄 卷二 二年(1507) 閏正月 己巳日條의 柳子光 제거 음모에 대한 鞫問 기사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 기록에 보이는 ‘木花’는 趙光輔의 개인어에 불과하였으나, 明宗朝에 李滉, 任權 등 조정 중신들의 말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확산되었고, 공문서로서의 啓文에 등장할 만큼 일반화된 것은 明宗 六年(1551) 禮曹에서 올린 啓文이 처음이다. ‘木花’라는 단어가 완전히 정립된 시기는 ‘木綿種/綿花種,’ ‘去核綿花’ 등의 합성어가 ‘木花種,’ ‘去核木花’로 나타나는 宣祖實錄, 仁祖實錄 즉, 17세기 중반이다.

2. ‘木花’라는 단어가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木=木綿’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었고, 이리하여 ‘木’字는 우리 나라에서만 ‘무명’을 의미하는 특수성을 지니게 되었다. ‘木’이 ‘무명’의 의미를 지닌 것

으로 처음 보이는 기록은 中宗實錄 三十七年(1542) 七月 乙丑日條 기사이다. 明宗實錄 이후에는 이러한 ‘木’의 용례가 풍부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어휘들의 발달은 ‘木花’를 매개로 한 韓·日間 공무역의 전개, ‘무명’을 기본 단위로 한 조세 제도의 정착 등 조선 후기 경제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3. 그 밖에 목화 관련 어휘들인 ‘무명,’ ‘물레,’ ‘씨아,’ ‘실,’ ‘솜,’ ‘베’ 등의 어원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3. ‘애국가’ 가사 변천 조사

8월 ‘安益泰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연구원에서는 애국가 가사의 변천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 동안 발굴된 애국가 관련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였으며, 현재의 애국가 가사가 ‘문교부’에서 정한 가사인 점을 고려하여 三省出版博物館, 韓國教育開發院에 보관된 해방 직후 교과서의 애국가 가사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드러난 주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896년 독립문 정초식에서 불렀다는 ‘무궁화가’는 현재의 애국가와 후렴이 똑같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점에서 공통된다. 현재의 애국가 가사는 ‘무궁화가’의 후렴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가사를 수정하였다. 1903년에 필사된 ‘愛國忠誠歌’와 1904년에 필사된 한문 애국가도 가사가 현재의 애국가 가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현재의 애국가 가사는 1910년 이전에 거의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현재의 애국가 가사와 비교하면 1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2절에서 ‘바람 이슬 불변함은,’ 3절에서 ‘구름 업시 놓고,’ 4절에서 ‘님군을 섬기며’ 등이 다르다. 해방이 되자 애국가는 자유롭게 불러질 수 있었는데 가사 내용에서 현재의 애국가 가사와 다소 다르며 3절이 없고 4절이 3절로 되어 있다. 1955년 ‘문교부’에서 간행한 국민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린 애국가 가사가 현재의 애국가 가사와 동일하다. 이 때부터 현재의 애국가 가사가 확정되었다.

조사 결과는 서울방송(1991. 8. 30. 오후 3시 45분)과 중앙일보(1991. 8. 31), 동아일보(1991. 9. 2)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4. 중국에서의 한국어 사용과 교육 실태 조사

안병희 원장과 전수태 연구관은 1991년 8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중국에서의 한국어 사용과 한국어 교육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연길, 심양, 북경 등을 방문하였다.

일행은, 9일에는 중국 조선어 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연변교육출판사에서 개최)에, 12일에는 제 2차 국제 학술대회(연변대학 주최)에 각각 참석하였으며, 13일 이후에는 동북삼성 조선어문사업단, 조선어문사업위원회,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심양 조선족 사범학교, 북경대학을 방문하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어 사용과 한국어 교육 실태 파악에 힘을 기울였으며, 남북 언어 차이 문제 및 중국 조선족의 언어 사용 현황 등에 관하여 관계 학자들과 논의하였다.

5. '정부 언론 외래어 공동심의위원회'의 발족과 미얀마 등 외래어 표기 확정

새로 들어오는 외래어의 한글 표기를 심의하게 될 '정부 언론 외래어 공동심의위원회'가 9월 10일에 발족하였다. 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안병희(국립국어연구원장)

부위원장 : 이민우(연합통신 심의위원,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보도용어 통일심의위원장)

위원 : 김광인(문화부 어문출판국장), 김상준(KBS 아나운서, KBS 한국어연구회 간사), 김완진(서울대 교수, 국어심의회 표기법 분과위원장), 남기심(연세대 교수, 국어심의회 표기법 분과위원), 임홍빈(서울대 교수, 국립국어연구원 연구 1부장), 정복수(스포츠토토 교열부장, 한국교열기자회 대표), 정준섭(교육부 교육연구원), 최상목(동아일보 교열부장) (이상 가나다순)

사무 간사 : 이상근(한국신문편집인협회 사무국장)

연구 간사 : 김세중(국립국어연구원 연구원)

이번에 발족한 정부 언론 외래어 공동심의위원회는 이름이 바뀌거나 한

글 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외국의 국명, 지명, 인명 등과 새로 들어오는 일반 외래어의 한글 표기를 국어심의회 표기법 분과위원회에서 제정한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된다.

9월 10일에 열린 첫 회의에서는 교육부에서 심의를 요청해 온 3개 국명과 1개 수도명 및 1개 도시명의 한글 표기에 대해 심의하였다.

첫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변경 전 지명	변경 후 지명
버마	미얀마
랑군	양곤
몽고	몽고, 몽골
레닌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크, 페테르부르크(약칭)

*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체코슬로바키아로 한글 표기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 역사적인 지명으로서의 버마, 랑군, 레닌그라드를 그대로 쓴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부의 각 부처에서 따르게 되고 내년도 교과서에 반영되며 신문과 방송에서도 따르게 된다.

6. 연구원 신규 발령

윤용선—6급 상당에 임함, 국립국어연구원 연구 1부 근무를 명함.

조남호—6급 상당에 임함, 국립국어연구원 연구 3부 근무를 명함.

(이상 7월 1일자)

이윤하—4급 상당에 임함, 국립국어연구원 연구 1부 근무를 명함.

김옥순—4급 상당에 임함, 국립국어연구원 연구 3부 근무를 명함.

(이상 7월 22일자)